교과서 출판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우리말 우리글》《한국사 교과서》 등 대안교과서 출판 본격화

대안교과서 출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을 펴낸 나라말은 올 2월 《중학교 2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과 《고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을 잇따라 펴냈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이상 전국국어교사모임)을 준비중이다. 휴머니스트는 중학생용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전2권)》를 펴냈고, 푸른역사는 올 7월 고등학생용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이상 전국역사교사모임)를 펴낼 예정이다.

"교육내용의 정부 통제 불가능하다"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은 지난해 3백여개 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 펴낸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이나 《고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도 서점에서 예상보다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나라말의 김희진씨는 전했다.

국정교과서가 구태를 벗고 새로운 내용과 편집을 많이 수용했지만, 아직도 교사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교육부 통제하에 교수들이 주로 집필한 국정교과서는 국가주의적 요구를 반영하거나 지식 위주로 꾸며져 있다. 학생들의 수준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적 · 정서적 욕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검증을 거친 대안교과서가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의 김주환씨(장위중학교 교사)는 "대안교과서가 인기를 얻는 것은 현장에서 대안교과서가 점점 현실화돼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는 교육내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말 우리글》의 경우, 교과서 진도와 호환이 잘 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체 교과서라기보다는 부교재나 보조교재의 개념이다. 그러나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사가 이 책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김주환씨는 말한다. 김씨는 "입시 자체가 다양화하고 능력시험으로 바뀌어서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입시경쟁력이 없고 시험 예문도 교과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글을 많이 읽고 다양한 문제상황을 접해봐야 입시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생산자로서 교사 역할 살려

이에 비해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국정교과서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점이 눈에 띈다. 단원 순서도 국정교과서와 일치한다. 부교재나 참고자료가 아니라 교과서를 지향한 셈이다. 이 책의 책임집필자인 김육훈씨(상계고 교사)는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빈약하고,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교과서는 현장교사들이 수업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교과서 자체를 바꿈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교과서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주제 중심의 접근과 연대기적 장점을 결합해 서술하고 각 단원마다 가볼곳, 만날사람 등 학생들이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민 점도 돋보인다. 또한 이 책에는 여성과 역사, 청소년의 삶과 꿈 같은 특별꼭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삶과 밀착된 역사적 소재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1천5백여컷의 사진,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프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한 점도 이 책이 국정교과서와 차별되는 특징이다.

이 책은 지난 1999년 8월부터 집필에 들어가 만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5명의 대표집필자가 참여했고 10여명이 원고를 검토했다. 또한 1백여명 이상이 참가한 세 번의 연수회에서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편집과정에서 시대사별로 전문역사학자들이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책을 책임 편집한 휴머니스트 주니어 이재민 편집장은 "실제 현장교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교사가 지식전달자뿐 아니라 지식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 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 등에서 아직도 문제점은 남아 있다.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각권당 1만2천원인데, 교과서 가격치곤 비싼 편이다. 또한 단행본처럼 유통되다보니 이런 대안교과서들이 서점에 청소년교양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참고서류와 함께 진열돼 있어 서점측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초판 5천질을 발행했는데, 일주일만에 2쇄를 찍어냈고 잇따라 3쇄에 돌입한 상태다. 주요 독자층은 아직은 교사나 일반 독자들이지만 4월 이후부터는 학생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라고 이재민 편집장은 내다봤다. 휴머니스트는 세계사, 과학 등 또다른 교과서도 펴낼 계획이어서 앞으로 대안교과서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장근 기자